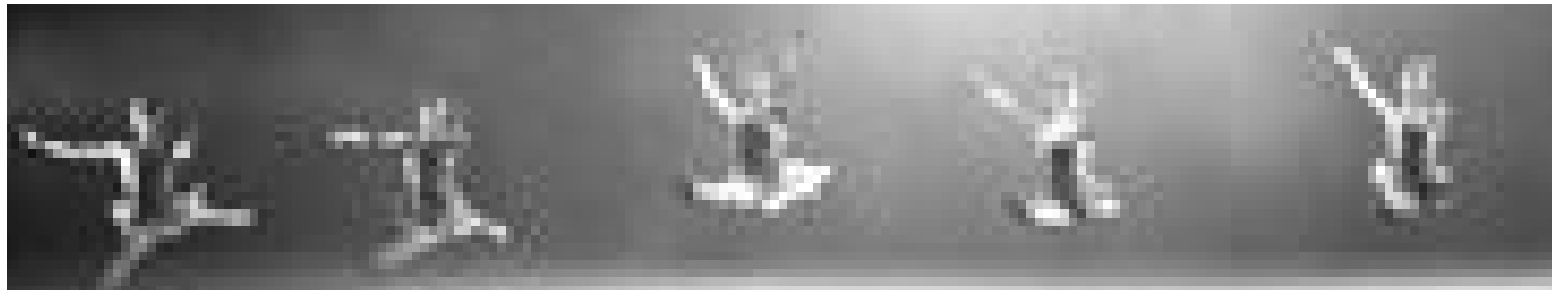


문화



2009 광주국제 공연예술제 폐막

광주 공연문화 도약 청신호

광주시와 (사)광주국제공연예술제 조직위(이하 조직위)가 주최한 2009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이하 예술제)가 지난달 31일 산카를로 극장의 '투란도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킬 앤 하이드' '리처드 웬재 오닐' 등 11개 작품이 공연된 이번 예술제는 광주 공연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번 예술제 관객수는 1만 4천 760명으로 객석 점유율은 81.5%에 달했다. 특히 단체를 포함, 유료 관객이 80%에 육박했다.

비엔날레와 함께 예술제를 광주 문화 행사의 양대축으로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은 일단 가능성을 보였지만 예술제가 명실상부한 대표 행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명품 공연 저렴하게 관람 조직위는 "좋은 공연을 부담 없는 가격에 선보이겠다"는 방침 아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일부 공연은 타 지역 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고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좋은 공연에는 관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투란도트'는 일찍이 매진율을 기록했고, 리처드 웬재 오닐은 개인 예매가 1천 300장을 넘어서다. 예

술제 전체 티켓 순수익금은 약 1억 5천만원이었다.

작품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뮤지컬 스타 브래드 리틀의 출연했던 '지킬 앤 하이드'는 오리지널 뮤지컬의 진수를 선보이며 기립박수를 받았고, 웬재 오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노래하듯이 랠릿', '휴먼 코미디' 등은 호평을 받았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렵다

1만5천명 관람...유료 관객 80% 육박 '지킬 앤 하이드'·'웬재 오닐' 등 호평 예산 확보·사무국 상설화 등 과제로

는 평도 있었지만 광주에서는 볼 수 없는 모던발레라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고 '장희빈'도 인기였다.

유료객의 확대는 고무적이었다. 광주은행 등 단체도 있었지만 개별 티켓 구입자와 여러 작품을 구매한 관객이 많았다는 점은 예술제의 미래를 밝히는 청신호였다.

관람 태도도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다. 일부 초대권 관객과 어린이들이 공연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지난 행사 때처럼 무질서한 모습은 보이지 않

았고 외부 공연 단체들도 관람 문화에 박수를 보냈다.

▲티켓 판매 시스템, 일부 프로그램 아쉬움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투란도트'는 극히 실망스러웠으며 광주대표 공연으로 무대에 올라온 일부 작품도 답답했다.

또 무용 작품들의 경우 단체 티켓 판매가 많았던 탓에 판매된 6천 여장 가운데 4천여명만 관람,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처음 도입한 '패키지 티켓 제도'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첫 시도인 탓에 인터넷 구매가 되지 않는 등 문제점도 노출했다. 또 티켓 가격이 저렴하기는 했지만 실문에서 '티켓 가격이 부담스러웠다'는 대답이 많았던 점을 감안, 가격 부담을 낮춘 프로그램 선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축소 우려·연중프로그램 필요 일단 예산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올 예산은 시·국비 6억원, 하지만 3억원을 지원했던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이 내년 예산을 2억으로 삭감, 비상이 걸렸다. 시와 조직위측은 국회 등을 접촉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4억 예산은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게 문화계의 판단이라는 점을 감안, 조직위는 기업 협찬 등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제 정착을 위해서는 사무국을 상설운영,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하는 게 급선무다. 특히 예술감독을 조기에 선정, 프로그램과 기획 등에 매진할 시간을 쪼여야 한다. 올해는 행사 3개월전부터 예술감독을 확정, 운신의 폭이 좁았다. 또 1년에 한차례 축제를 치르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올해 유입된 관객들을 '고정 관객'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광주의 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외지 관객을 끌어들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밖에 2억 여원의 부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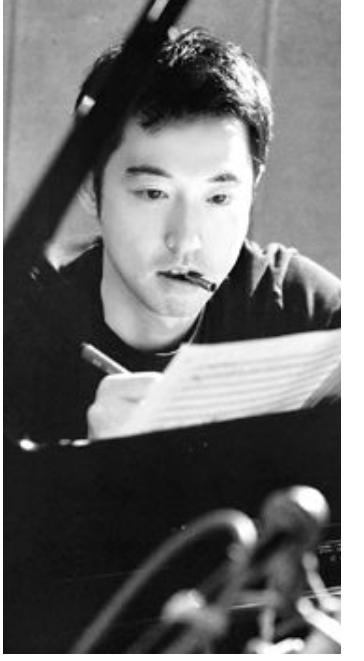
김선욱

김선욱 & 이루마

피아노 독주회

김 - 오늘 5·18문화센터

이 - 7일 5·18문화센터



이루마

'두가지 색 피아노 독주회.'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이루마가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매 콘서트마다 찬사를 받으며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선욱(21)이 처음으로 광주 무대에 선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건음악회' 초청으로 광주를 찾는 김씨는 2일 오후 7시30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지난 2006년 18세의 나이에 세계적 권위의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이자 동양인으로 는 처음 우승, 화제를 모았던 김씨는 이번 광주 공연에서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48번 C장조 2악장',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소나

타 6번 A장조 4악장', 쇼팽의 '벧노래', 쇼팽의 '피아노소나타 3번 B단조 4악장'을 들려준다.

시스템창조 전문기업인 (주)이건창호가 메세나 활동 일환으로 지난 1990년부터 시작한 '이건음악회'는 지역민들에게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클래식 전문 음악회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루마는 7일(오후 5시)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광주팬들을 만난다.

'Moment on a theme by Yiruma'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최근 디지털 음반으로 발매한 미니 앨범 수록곡인 '너의

마음 속엔 강의 흐른다', '하늘 사이로', '너에게' 등을 들려준다.

또 자신의 히트곡들을 새롭게 편곡해 선사하며 피아노 이외에 퍼커션, 건반, 현악 등이 함께 어우러지며 기존 음악회와는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지난 2001년 첫번째 연주 앨범 'Love scene'을 발표하며 등장한 이루마는 이후 드라마 '겨울연가'에 삽입된 'When the love falls'이 인기를 모으면서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로 떠올랐다.

매년 전국 투어를 갖고 있는 이씨는 올해도 15개 도시에서 팬들을 만난다.

티켓 가격 6만 6천원 ~ 3만3천원. 문의 02-2658-35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양화가 정홍기 개인전

4일까지 광주 대동갤러리

화사하게 핀 나무 들녘의 배꽃과 설악산의 설경 등을 화폭에 담고 있는 서양화가 정홍기씨가 오는 4일까지 광주 대동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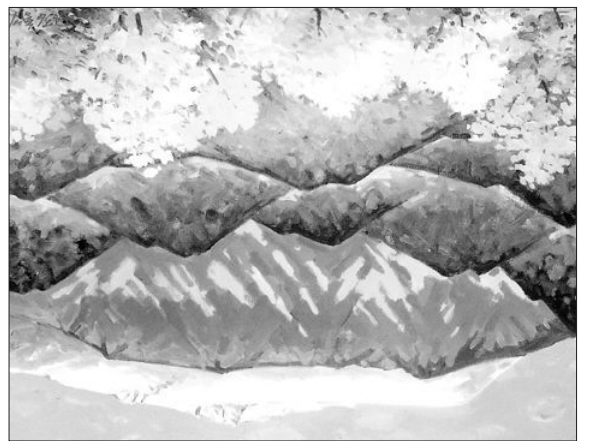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정씨는 제주 성산포, 지리산 계곡, 무등산 등지의 풍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형상화한 신작을 선보인다.

그가 포착한 풍경에는 꽃이 자주 등장해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을 준다.

무등산의 봄을 그린 '서석대의 봄'은 만개한 철쭉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 작품이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푸른 하늘은 동양화의 여백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을 준다.

또 각기 다른 표정과 몸짓의 여인들을 등장시켜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한 '가을 향' 등의 작품도 눈에 띈다.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정교수인 그는 "그가 표현한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산천에 한치의 손색도 없다"



'무등 정취'

면서 "이들 작품은 희망과 의욕을 충분히 솟아오르게 할 에너지를 분출시킨다"고 평했다.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출신으로 한국구상청년작가회전, 한일현대미술의 오늘날 등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전남도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전우회, 무등회 회원과 나주대학교초연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성작가회 광주·서울전 '가을, 보헤미안'

4일까지 광주 무등갤러리

이 지역 여성 작가들의 모임인 광주·전남 여성작가회(회장 이해경)가 광주(무등갤러리·4일까지)와 서울(인사동 광주시립미술관 라이트갤러리·18~24일)을 오가며 단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숙자, 고윤숙, 기옥란, 노정숙, 서지숙, 오혜경, 이정주, 전현숙, 정순이, 조정아, 주미희, 함영순씨 등이 참여해

'가을, 보헤미안'을 주제로 개성 넘치는 작품 세계를 펼쳐보인다.

권하주씨는 만개한 장미꽃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정화'를 선보이고, 민명화씨는 차를 마시는 여인의 한가로운 휴식 공간을 담은 '여유'를 출품했다.

지난 1982년 창립한 광주·전남여성작가회는 그동안 20여 차례 정기전과 이웃사랑전 등의 기획전을 열었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해경 작 '목화'

영/화/안/내

영화에이웃이다

메가박스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Title. 1. 굿모닝프렌즈 (전제) 최고급판, 2. 바스터즈: 거친녀석들 (18세), 3. 파주 (18세), 4. 시간여행자의 아내 (12세), 5. 시간여행자의 아내 (12세), 6. 여행자 (12세) / 하늘과 바다 (12세), 7. 바스터즈: 거친녀석들 (18세), 8. 팬도럼 (18세) / 나는 비와 함께 간다 (18세), 9. 디스트릭트9 (18세), 10. 굿모닝프렌즈 (전제)

• 예프유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면역국사거리 ♥예매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Title. 1. 굿모닝프렌즈 (전제), 2. 하늘과 바다 (12세), 3. 굿모닝프렌즈 (전제), 4. 굿모닝프렌즈 (전제), 5. 파주 (18세), 8. 마이클잭슨의 디스이즈 잇 (전제), 7. 바스터즈: 거친녀석들 (18세), 8. 디스트릭트9 (18세) / 팬도럼 (18세), 9. 시간여행자의 아내 (12세), 10. 바스터즈: 거친녀석들 (18세)

원도사람 영화사랑 • 예매: www.joycn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대 이마트 사이) 매달별 (무역화관월권)



1588-7941 상무병원대 병행-(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Title. 1. 여자 (15세) / 씨로게이트 (15세), 2.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3. 파주 (18세), 4. 부산 (15세) / 팬도럼 (18세), 5. 내사랑 내결에 (12세), 6. 디스트릭트9 (18세), 7. 굿모닝프렌즈 (전제), 8. 굿모닝프렌즈 (전제), 9. 굿모닝프렌즈 (전제), 10. 하늘과 바다 (12세)

• 5000대 넘는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용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8미 수영장 289-5757 • 하이 불린장 262-0925 • 6미 골프장 251-5080 • 하이 잠주장



고려사할 고객사랑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운 하미스포박스 ☎ 267-7777

씨너스전대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Title. 1. 굿모닝프렌즈 (전제), 2. 디스트릭트9 (18세), 3. 굿모닝프렌즈 (전제), 4. 파주 (18세), 5. 팬도럼 (18세) / 내사랑 내결에 (12세), 6. 바스터즈: 거친녀석들 (18세), 7. 시간여행자의 아내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용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북자 사우나(오전5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선배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Title. 1. 굿모닝프렌즈 (전제), 2. 굿모닝프렌즈 (전제), 3. 파주 (18세), 4. 하늘과바다 (12세), 5. 내사랑 내결에 (12세), 6. 나는 비와 함께간다 (18세), 정승필실종사건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서 옆 초년터워주저장) • 단, 입점점 구역, 고래에 한함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icinema.co.kr • 용평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